



무등산 옛길 개방 15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되는 무등산 옛길 일부인 산수동~원효사 구간(7.75km)을 13일 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오르고 있다. 도심에서 무등산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한 무등산 옛길의 나머지 구간(원효사~서석대, 4.12km)은 다음달 중 개방된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효과 더딘 '재정 조기집행'

“윗목은 냉골” 취업·소비 아직 감감

광주시 1조3천억·전남도 1조8천억 집행 공공근로 등 늘려 민간 바닥경제 살려야

정부의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 집행 등 경제살리기에 대한 노력에도 체감감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4월 들어 경기 급락세와 실업률 등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소비자 경기지수와 취업자 수 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얼마나 쏟아부었나? =광주시는 5월 8일 현재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해 2천426억원, 건설 부문 1천766억원 등 줄잡아 100개 부문에 걸쳐 1조3천292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80% 가량은 SOC확충 사업비다.

전남도는 지난 1월21일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벌였다.

그 결과 13일 현재 일자리 창출 141억원, 서민 생활안정대책에 606억원 등 각 분야에 총 1조8천741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목표액(2조5천800억원)의 72.7%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도 이날 현재까지 2조6천837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숨통을 터주기 위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도 전남도 육성자금 지원 762억원, 전남신보 보증지원 603억원 등이 이뤄졌다.

◇민간부문 침체 여전, 공공건설 '숨통' = 지역 건설 경기는 민간 부문과 공공건설 부문에서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건축 착공면적이 5분기 연속 감소한데다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1만2천136호는 전년 말(1만1천505호)보다 증가하는 등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발주와 광주·전남혁신도시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공공건설 경기는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 있다.

1/4분기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는 886개로 전 분기 706개보다 많이 증가했다. 전년동기(788개)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395개로 전분기(372개)에 비해 23개가, 전남지역은 471개로 전분기에 비해 137개가 증가했다. 이는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 2012 여수엑스포 등 지역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건설업 증가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도 건축·설계·측량·건설링 등 건설관련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40개가 증가했다.

◇효과 거두려면 =일선 지자체는 시장흐름이 왜곡돼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고용·수요 창출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재정조기 집행의 주 수혜층인 건설사들이 돈을 풀지 않는 등 자금의 병목현상이 빚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은행권에 돈을 맡기는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다보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로 건설업체들에게 자금이 수혈되고 있지만, 인력 채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 현재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보다는 중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서민들의 통장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게 해야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이 이뤄지는 등 바닥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양만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에서는 서민들에게 직접 자금이 수혈될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관영·윤영기기자 cki@

李 대통령 “경제위기 여파 1~2년 더 갈 것”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사(경제가) 조금 좋아지더라도 경제위기의 여파는 1~2년 더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정부 대책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수행경계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계 금융위기로 어디나 다 어렵지만 기업인들이 시장 곳곳에 침투해 그나마 우리 경제가 다른 나

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징조가 보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한, 두개라도 더 늘어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인들도 국내외에서 어려울 때 도전하고, 힘들지만 세계의 틈새시장을 놓치지 않고 진출해 성과를 거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 많은 나라에 와서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겠느냐”면서 “국책 기업들도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한·미 정상회담 이전 PSI 가입 검토

정부가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PSI 전면참여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며 발표시점만 조율중인 데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면서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PSI전면참여를 발표하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PSI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PSI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지만 발표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일피일 미뤘었다. /연합뉴스

그린IT·녹색기술 12조원 투자

녹색성장추진, 2012·2013년...53만명 일자리 창출

그린IT·녹색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는 2012~2013년까지 12조원을 집중 투자해 5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그린IT 국가전략과 녹색기술 상용화 전략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그린IT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그린IT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IT 제품 개발 ▲IT서비스 그린화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구축 ▲IT를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 전환 ▲IT기반 그린 생활혁명 ▲IT융합 제조업 그린화 ▲지능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능형 실시간 환경감시체계 구축 등 2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그린IT 국가전략 핵심과제 추

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4조2천여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7조5천억원(부가가치 창출 효과 3조1천억원), 일자리 창출은 5만2천명,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는 1천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컴퓨터, TV 및 디스플레이, 서버 등 3대 IT제품을 그린IT 제품으로 집중개발하고, 공공부문에 그린IT 제품을 우선 적용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녹색기술 강국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2012년까지 8조5천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단위 녹색기술 투자규모는 2008년 1조4천억원에서 올해 1조9천547억원, 2012년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내수 규모는 2012년 1천500억달러에서 2020년 4천100억달러로 확대되며, 고용규모는 2012년 48만1천명, 2020년 1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의 특별기획 **진!다**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곳!! **제주도** **재발견**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선박+선박 149,000원**

"5월~6월"

전일정 제주출발 **도/학/기/준**

항공+항공 249,000원: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박+선박 149,000원: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박+선박 149,000원: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6월: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6월: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일정 제주출발: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일정 제주출발: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학/기/준: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학/기/준: 제주도 특색있는 산악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